



아트센터 인천 외관

(c) kim yong kwan

국제도시 인천에서 펼쳐지는 예술적 상상력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이 개관 1주년을 앞두고 미술관과 오페라 하우스를 갖춘 복합문화예술기관이 되기 위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콘서트홀의 문을 연 아트센터 인천은 지난 1년간 클래식 마니아들이 기대할 만한 세계적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과 대중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클래식까지 다양한 관객층을 수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획공연을 연간 40여 차례 진행했다.

콘서트홀의 음향설계는 측벽 반사음 효과를 극대화해 관객과 거리는 좁히고 음악적 몰입감은 높였다. 어떤 자리에서도 음향의 편차를 느낄 수 없도록 설계된 콘서트홀은 독주, 실내악은 물론 대편성 오케스트라까지 완

벽한 사운드를 선사한다.

개관을 기념해 펼쳐진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이탈리아 명문 악단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티켓 오픈 1분 만에 매진돼 화제가 됐다. 올해에는 작품성과 흥행성을 갖춘 작품들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천지창조와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내한 공연을 개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올리아 피셔 공연을 시작으로 벨체아 콰르텟, 레자르 플로리상&윌리엄 크리스티의 메시아로 클래식 프로그램을 선사했다. 또 잉글리시 콘서트&조수미(11월 6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조성진(11월 9일), 안드라스

시프&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오케스트라(11월 13일)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도 이뤄졌다.

아트센터 인천은 내부의 빛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시스템이 도입된 데다 바다를 바라보는 전망이 뛰어나 드라마, 광고,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아트센터 인천은 정통 클래식부터 대중 클래식까지 매년 60회 이상 기획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오픈하우스 콘서트와 대중적 레퍼토리의 시리즈 공연도 정기적으로 선보여 장르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관객층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으로 문을 연다. 또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기념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다. 최고 기량을 갖춘 국내

외 연주자들을 초청해 독주, 듀오, 실내악의 소규모 편성 곡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트센터 인천 브랜딩을 위한 독자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콘서트홀 외 다목적홀, 야외광장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아트센터 인천은 콘서트홀 조성에 이어 2단계 사업인 오페라하우스(1천439석 규모)와 뮤지엄(연면적 1만5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쇼핑공간 아트포레 단지 조성까지 마무리되면 향후 세계적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트센터 인천 내관

(c) kim yong kwan

Raising the Waves,
Touching the Senses,
Music by the Sea

ARTS CENTER INCHEON



바다와 자연, 음악이 물결치는 찬란한 공간에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클래식을 만납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새롭게 문을 연 글로벌 복합문화공간,
아트센터 인천 (Arts Center Incheon).

www.aci.or.kr

